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만 8명…전국 최다 경쟁률(종합)

등록 2026.05.15 22:05:14



[서울=뉴스시스] 배훈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접수가 시작된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선거 후보자 대리인들이 서류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5.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제9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까지 보수·진보 진영 모두 '완전한 단일화'에 실패하며 무려 8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15일 오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보면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8명이 등록했다.

대전 5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종·강원·충남·경남 각각 4명,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북·제주 각각 3명, 경기·전북 2명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에서는 이미 후보자 등록 신청 첫째 날인 14일에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등록을 마무리했다. 15일에는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조전혁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 이학인 신한대 부교수가 각각 등록 절차를 밟았다.

그간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경선을 거쳤으나 불복으로 완전한 단일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영배 부총장 ▲류수노 전 총장 ▲윤호상 겸임교수 ▲조전혁 전 의원 등 4명이 등록했으며,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교육감 ▲한만중 상임대표 ▲홍제남 소장 등 3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 주관 단일화 경선을 통해 윤 검임교수가 단일후보로 추대됐지만, 류 전 총장이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단일화가 무산됐다.

이후 조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며 류수노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경선을 펼쳤다. 전날 류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자 조 전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고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하지만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문항이 경선 직전 사전 합의 없이 수정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입장을 급선회해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2026 서울 민조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 주관 단일화 경선에서 정 교육감이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 전 상임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 독자 출마를 선택했다.

홍 소장은 처음부터 추진위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선거 활동을 이어왔다. 이학인 신한대 부교수도 보수와 진보 양쪽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날 후보로 깜짝 등록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다음 달 3일이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 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575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